

# 목책시설의 소고 (木柵施設의 小考)

孫 永 植

〈文化財管理局補修課長〉

## 차 례

- I. 서론(序論)
- II. 사적고찰(史的考察)
- III. 발굴조사성과(發掘調査成果)
- IV. 목책(木柵)의 성격검토(性格檢討)
- V. 결론(結論)

## I. 서론(序論)

도구(道具)를 사용할 줄 아는 인간(人間)은 원시(原始)부터 자신(自身)의 안전(安全)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 방비활동을 하여왔다. 문명(文明)이 발달되지 못한 당시로는 개인(個人)보다는 집단(集團)이 방어에 유리했기 때문에 집단부락(集團部落)을 이루어 공동으로 다른 씨족이나 맹수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동굴(洞窟)입구를 방책(防柵)하거나(그림1 참조), 취락(聚落)의 주위를 방책(防柵)으로 둘러거나 흙, 또는 돌로 둔덕(塹)을 쌓았다.



그림#1: 원시인의 목책(木柵)설치(상상도)

그밖에 부락(部落)주변을 인위적으로 고랑(해자(垓字))을 파거나 그 고랑에 물을 채우기도 하였고 한편으로 자연해자(自然垓字) 즉 천연적인 하천, 해안 등을 이용하여 방어에 유리하도록 하였다.(그림2 참조).

이와 같은 현상은 오늘날 미개지(未開地)의 원주민생활(原住民生活)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설을 해놓고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방어시설로서의 목책(木柵)은 외적(外賊)으로부터 아측(我側)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手段)으로 세운 축조물(築造物)이라고 볼 때 위에서 언급한 시설들은 이미 방어시설(防禦施設)로서의 목책시원(木柵始原)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선사시대(先史時代)로 기록(記錄)이나 발굴성과(發掘成果)에서는 보이지 않는 시기로 목책(木柵)이 언제부터 설치되어 방책(防柵)구실을 하였는지는 추정만 할 따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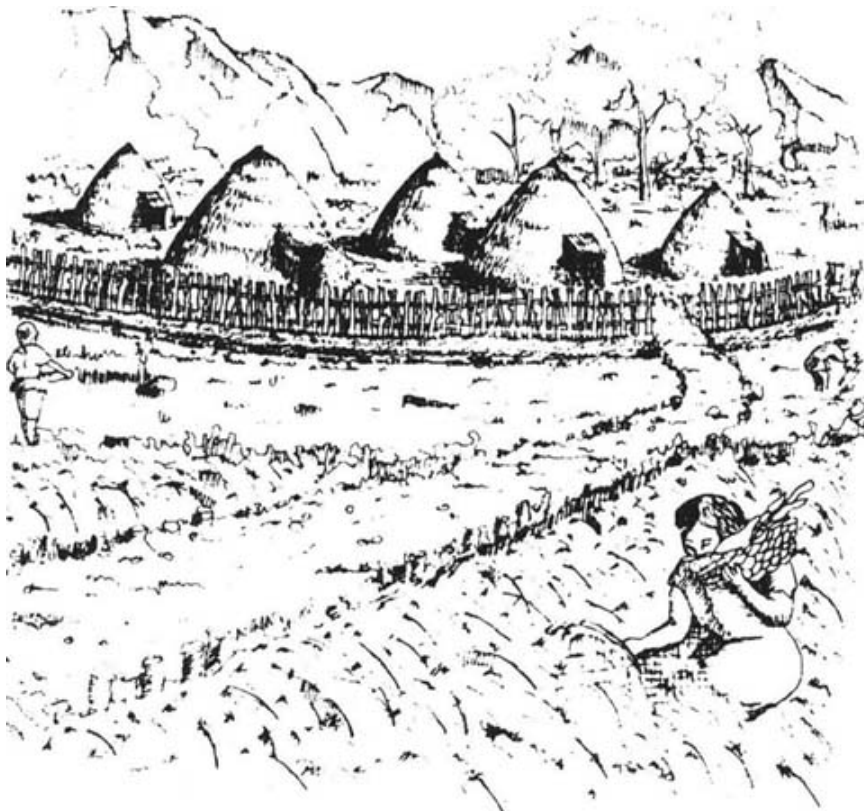


그림 # 2 : 先史時代의 木柵(상상도)

그림#2 : 선사시대(先史時代)의 목책(木柵) (상상도)

## II. 사적고찰(史的考察)

방어시설(防禦施設)로서의 역할(役割)을 한 목책(木柵)기록을 살펴보면

부여(扶餘) : 작성책(作城柵) 개원(皆員) 유사이뢰옥(有似二牢獄)

진한(辰韓) : 유성책(有城柵)

고구려(高句麗) : 책성(柵城)(태조왕(太祖王) 46년(年))<sup>1)</sup>

신라(新羅)(일성이사금(逸聖尼師今) 4년(年)) : 말갈입색(靺鞨入塞) 소장령(燒長嶺) 오책(五柵)<sup>2)</sup>

백제(百濟)(온조왕(溫祚王) 8년(年)) : 축마수성(築馬首城) 수병산책(豎瓶山柵)

백제(百濟)(온조왕(溫祚王) 11년(年)) : 설독산구천양책(設禿山狗川兩柵)

백제(百濟)(온조왕(溫祚王) 13년(年)) : 취한산하입책(就漢山下立柵)<sup>3)</sup>

위의 기록으로 보아 기원전후(紀元前後) 즉 초기철기시대(初期鐵器時代)에 이미 목책(木柵)을 방어시설물로 널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목책(木柵)은 각 시대(各時代)를 거치면서 다소의 형식변천이 있었으며 조선시대후기(朝鮮時代後期)까지 간헐적으로 사용되었는데 목책(木柵)의 재료특성상(材料特性上) 그 유구가 잘 남아있지 못하여 목책(木柵)의 형식과 발달(發達)과정을 잘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목책(木柵)을 방어수단(防禦手段)으로 사용한 기록(記錄)은 보이고 있어 그 중 일부만 소개해 본다

「辛酉初都體察使鄭奉啓曰慶尙道巨濟縣人等狀告曰,……今島內要害處並樹木柵列置兵船守禦,……」<sup>4)</sup> 즉 도체찰사 정분이 아뢰기를 경상도 거제현 사람들이 장고하여 아뢰기를, ……지금 섬내의 요해지에는 모두 목책을 세우고 병선을 줄지어 두었으므로 방비가 튼튼하다고 한 것은 당시 실전(實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방책(防柵)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5)</sup>

그외에도 실전(實戰)에 있어서 방책(防柵)에 의지하여 대승(大勝)한 경우로 임진삼대첩(壬辰三大捷)의 하나인 행주대첩(幸州大捷)을 거둘 때 권율장군이 사전에 준비해둔 성책(城柵)에서 왜군(倭軍)을 크게 물리친 경우가 있다.<sup>6)</sup>

## III. 발굴조사성과(發掘調査成果)

방어시설로서 목책(木柵)시설은 발굴조사과정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여건이 있고 비록 목주(木柱)의 흔적이 발견되더라도 목책(木柵)의 목주(木柱)라고 단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은 실정이다. 목책(木柵)이외에도 발견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 보면

① 토(土), 석성(石城)축조지역의 지반을 보강하기 위해 생목(生木)을 박아두는 경우

② 해안(海岸), 강안(江岸)지역에 선박 접안(接岸)시설을 위해 목주(木柱)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

③ 토성벽(土城壁)조성시 판축공사(版築工事)에 필요(必要)한 발판이나 가설물지주(架設物支柱)로 사용된 경우

④ 다리가설시 다리하부구조인 교각(橋脚)역할로 설치한 경우

1) 三國志 魏志東夷傳  
2) 三國史記 新羅本紀 (卷 1)  
3) 三國史記 百濟本紀  
4) 端宗實錄 (第四卷) 壬申年  
5) 端宗實錄 (第四卷) 壬申年  
6) 宣祖實錄 (卷三十六) 癸巳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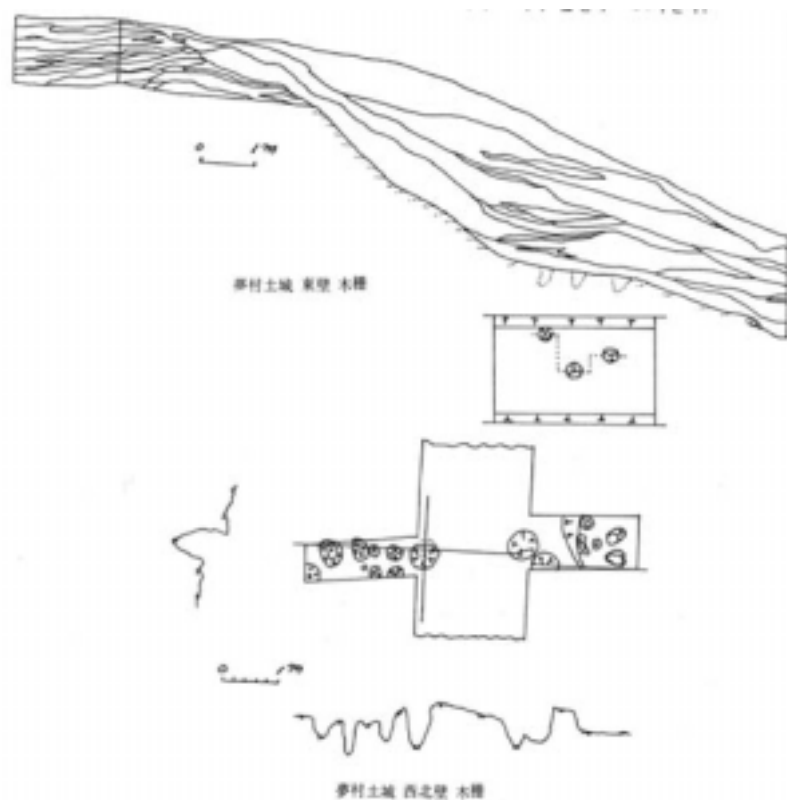
⑤ 기타 다른 용도로 목주(木柱)를 설치하는 경우

이와 같이 방책(防柵)으로서의 목책(木柵)여부가 확인되기에 여러 어려움을 전제로 하고 그 동안 발굴성과중 대표적인 목책(木柵)을 살펴보고자 한다.

●몽촌토성(夢村土城)

현재는 올림픽공원으로 더욱 알려진 몽촌토성은 성둘레가 약 2,285m의 자연지형을 이용하면서 축조된 성곽으로 1984~1988년간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한 바가 있다. 이 조사결과에<sup>7)</sup> 따르면 몽촌토성은 출토유물(出土遺物)로 미루어 3 C 후반의 유물로 알려진 중국서진시대(中國西晉時代)(AD 265-316)의 회유전문도기편(灰釉錢文陶器片)으로 추정된다.

토성(土城)의 서북벽외벽(西北壁外壁)과 동벽외벽(東壁外壁)의 기저부에 가까운 토성벽 경사지(土城壁傾斜地)에서 판축(版築)한 하부생토암반층(下部生土岩盤層)을 파고 기둥을 세웠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최소한 목책(木柵)은 토성(土城)이 축조될 때이던가 토성축조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볼 때 목책시설(木柵施設)시기는 더욱 앞선다고 보여진다.



몽촌토성(夢村土城) 동벽(東壁) 목책(木柵)  
 몽촌토성(夢村土城) 서북벽(西北壁) 목책(木柵)

7) 夢村土城發掘調查報告(198

발굴조사도를 살펴보면 목책(木柵)이 발견된 지점은 2개소로 공(共)히 토성벽외부(土城壁外部) 경사면에서 내려오면서 다소 편평하게 단(段)이 이루어진 듯 보이는 지반에서 발견되었는데 현 토성벽(土城壁)의 현지반 2m 정도의 아래 원지반 암반층을 파고 세운 주공(柱孔)이 발견되었다.

이 주공(柱孔)들은 1m내외의 폭(幅)을 갖고 한 줄로 주주(主株)를 세웠는데 직경(直經) 40~50cm, 깊이 30~90cm크기로 되어있다. 주주(主株)의 간격은 약 1.8m, 보조주(補助株)는 주공(柱孔)의 가운데 즉 90cm되는 위치에 세워져있다. 동벽(東壁)의 목책(木柵)유구는 주공(柱孔)사이에 있는 보조주(補助株)는 60. 경사진 구멍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목책(木柵)을 세울 때 수직으로만 기둥을 세운 경우만 있지 않고 비스듬히 세웠음을 보여주는 예로 보여진다. 몽촌토성의 경우 성벽의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 목책유구를 밝히지 않았으나 토성벽외벽(土城壁外壁)에 전반적으로 목책(木柵)을 들렀을 것으로 본다.

●양산순지리토성(梁山尊池里土城)

경남(慶南) 양산군(梁山郡) 하북면(下北面) 순지리(尊池里) 산성산(山城山)(표고(標高) 213m)지역으로 이곳은 1982년 개발 계획에 따라 이곳이 개발 범위 내에 들게되어 구제 발굴된 토성(土城)이다. 발굴조사는 동아대학교(東亞大學校) 박물관(博物館)에서 1982-1984년에 걸쳐 조사된 바 있는데 발굴조사결과<sup>8)</sup>에 따르면 토성의 축조형식은 산성내(山城內) 산정상(山頂上)을 중심으로 그 주위를 흙으로 쌓아 올린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산정상(山頂上)을 중심으로 둘러진 퇴피식산성이다. 토성(土城)의 축조는 판축기법(版築技法)을 사용하여 가파른 경사면의 바깥쪽을 받쳐 경사면을 연장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토성(土城)의 기저부에서 토성을 축조하기 이전의 것으로 보이는 목책(木柵)이 두 줄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유구가 나타났다. 폭 4m를 유지하면서 목주(木柱)간의 간격은 1m내외로 보이고 일부 발굴지에서는 목주(木柱)가 부식된 상태로 보이는데 이곳의 목주(木柱)는 두줄로 나타남이 특이하다. 순지리토성은 출토유물로 보아 6C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목책(木柵)은 토성축조(土城築造) 이전에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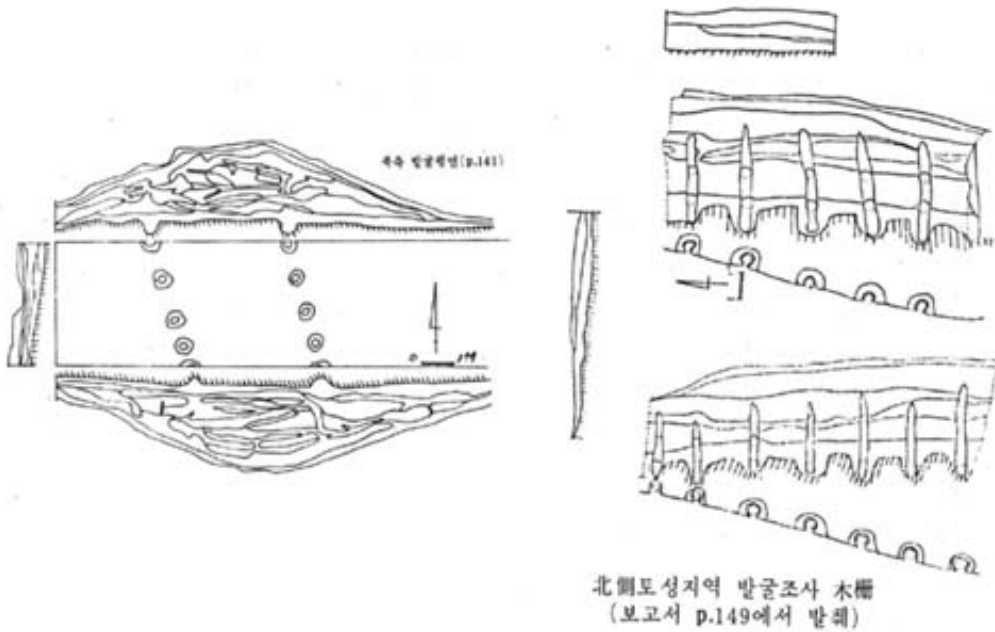


梁山尊池里土城 平面圖(報告書 p.41에서 발췌)

梁山尊池里土城 平面圖 (報告書) p.41에서 발췌)

8) 梁山尊池里土城(1983. 東亞大學校, p.335-339)

도면에서 보면 목주(木柱)의 구멍크기는 50cm 내외, 깊이 60~90cm, 목주(木柱)의 굵기는 20~30cm가량으로 주변에서 획득한 나무를 활용(活用)하여 축조한 듯하며 목재(木材)의 종류는 규명되지 않았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로걸침목(횡목(橫木))이 사용되지 않은 듯이 보여 방어력(防禦力) 확보에 의문점을 갖게 한다. 그러나 토성지(土城址)에 2줄로 나란히 일정하게 설치한 점은 다른 목책(木柵)과 다른 새로운 형식을 보여주는 좋은 예(例)가 되고 있다.



北側 토성지역 발굴조사 목책 (보고서 p.149에서 발췌)

● 목천토성(木川土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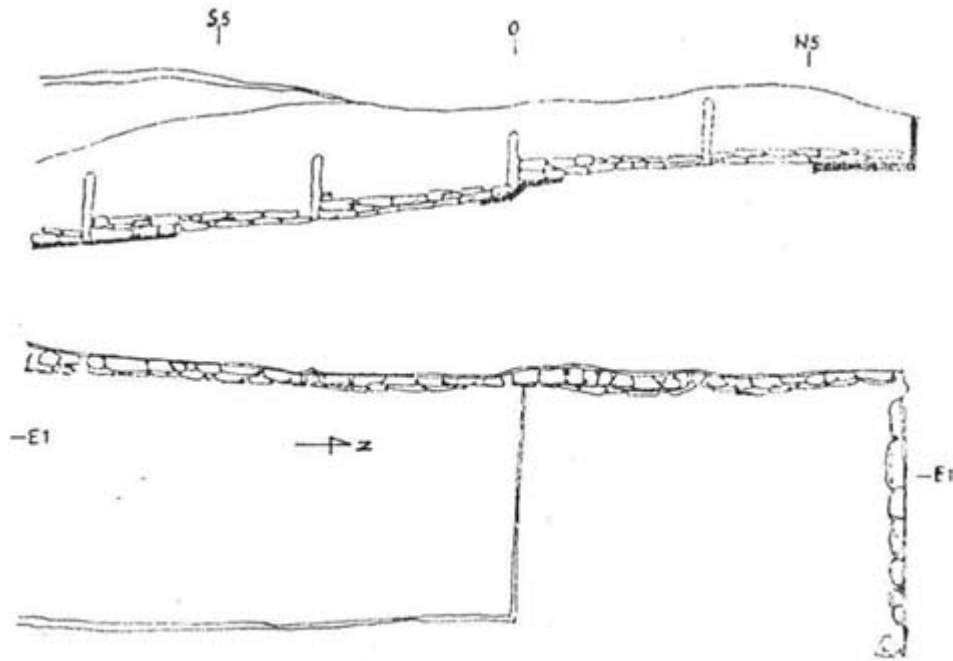
목천토성(木川土城)은 현재 독립기념관(獨立紀念館)의 주차장(停車場)부지로 지금은 없어졌다. 목천토성의 발굴은 충남대학교박물관(忠南大學校博物館)이 이곳이 독립기념관건립예정지(獨立紀念館建立豫定地)로 선정되어 이의 구제발굴로 조사되었는데 토성(土城)은 흑성산(黑城山)기슭에서 동남측(東南側)으로 향한 한 갈래의 낮은 구릉단부(丘陵端部)에 위치한 태지(台地)인데 태지정상부(台地頂上部)에 축조된 토성(土城)이다. 발굴조사결과<sup>9)</sup>에 따르면 토성(土城)규모는 둘레 약 450m정도의 토성벽(土城壁)중 흔적을 남기고 있는 부분은 약 200m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통과지점으로 알려졌고 성 전체면적은 약 7,333평(坪)에 달한다. 이 토성은 판축기법(版築技法)으로 축조하였는데 토성벽(土城壁)의 기저폭이 5.6m, 높이 4.5m로 특이하게 토성벽(土城壁)기저부에 석열(石列)이 발견되었고 3.8m를 한 구간으로 하는 판축(版築)을 분단식(分段式)으로 나누어 축차적으로 연장하여 조성한 특징을 갖고 있다. 토성(土城)의 목주(木柱)흔적은 판축토(版築土)를 가로막기 위하여 사용한 협판(挾版)을 고정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토루(土壘)를 축조하기 위한 발판의 가설용(加設用)인지는 규명되지 못하였

9) 木川土城(1984. 忠南大學校 博物館)

지만 목주(木柱)의 유구(遺構)로 보아 목책(木柵)의 방어시설(防禦施設)로서 결정적(決定的)인 요소(要素)로 역할(役割)은 하지 못한 듯하다. 목주(木柱)의 한 구간 길이는 3.8m를 기본으로 하고 높이는 1m내외, 목주직경(木柱直徑) 15cm 정도의 원목(圓木)을 세웠고 서측성벽(西側城壁)에서는 목주(木柱)구멍이 풍화암층(風化岩層)에 판 구멍의 크기가 직경 38cm, 깊이 약 25cm정도로 밝혀졌다. 목천토성(木川土城)은 다른지역의 발굴조사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방책(防柵)으로서의 목책(木柵)에 여러 의문점을 보여주고 있으나 방어시설물(防禦施設物)인 토루(土壘)의 기저부(基底部)에서 나온 점과 토성축조(土城築造)와 관련을 갖는 점에서 목책(木柵)연구 자료로써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고 보여진다.



木川土城 配置圖



發掘立面 및 平面圖

發掘立面 및 平面圖

● 청해진유적(淸海鎭遺蹟)

장보고(張保臯)유적으로 잘 알려진 청해진(淸海鎭)은 신라 흥덕왕(興德王)3년(年)(AD828) 장보고(張保臯)가 중국(中國)으로부터 돌아와 군사일만(軍士一萬)으로 청해진을 설치하였다.<sup>10)</sup> 현(現) 청해진(淸海鎭)은 완도읍(莞島邑)에서 북측(北側)으로 약 6km가량 떨어진 장좌리(長佐里) 장도(將島)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섬 전체를 이용하여 독립된 성을 구축한 것으로 장도(將島) 동(東)·서남안(西南岸)은 급경사를 이루어 성내 출입이 용이치 않고 서편(西便)은 섬 내에서 가장 낮은 지세를 이루고 있다. 성내(城內)의 정상부(頂上部)는 동(東)쪽에 위치하여 서(西)·서측(西側)은 약 30m폭의 갯벌이 섬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서남지역(西南地域)은 만조시는 수심(水深)이 1~1.5m이나 간조시는 갯벌이 드러나 본 섬인 완도(莞島) 장좌리(長佐里)와 연결된다. 청해진성(淸海鎭城)은 내성(內城)과 외성(外城)을 갖춘 성으로 보았으나 조사결과(調查結果) 석축(石築)성벽과 토축(土築)성벽이 결합된 단일성(單一城)으로 확인되었다.<sup>11)</sup>

목책(木柵)으로 보이는 목주(木柱)는 청해진(淸海鎭)의 서남우(西南隅)해변과 남해변(南海邊)에서 집중적(集中的)으로 발견되었는데 도면(圖面)에서 표시(表示)된 바와 같이

10) 『三國史記』新羅本紀 第 10, 興德王 3년條 “夏四月 淸海大使弓福 姓張氏(一名 保臯) 入唐徐州 爲軍中小將

後歸國謁王 以卒萬人 鎭淸海”

11) 張保臯의 新研究 (淸海鎭의 歷史的 考察과 그 城의 分析 p.227)



장좌리(長佐里)에서 청해진 성으로 들어오는 입구(入口)의 목주(木柱)(D-B 지역)는 한 때 드러나 보였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목교(木橋)의 하부(下部)구조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남해안측의 B-W지역의 목주(木柱)는 만조시에는 잠기고 간조시는 들어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자(調査者)는 목주(木柱)의 성격(性格)이 불투명한 점을 고려, 이를 목책(木柵)이라 부르지 않고 원목열(圓木列)이라고 지칭하고 있다.<sup>12)</sup>

목주(木柱)의 간격은 상부(上部)에는 약 13m정도이나 하부(下部)에는 한치의 여유도 없이 20~37m의 원목(圓木)이 수직으로 71cm깊이로 같은 지반에 박혀 있었다. 통나무는 톱으로 쓴 흔적은 전혀 볼 수 없고 이 목주(木柱)의 부재(部材)는 방사성탄소연대측정(放射性炭素年代測定)을 의뢰한 결과 AD840년(年)으로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AD828년에 만들어짐이 확인되었다. 목주(木柱)의 재질(材質)은 소나무와 참나무를 함께 사용하였음도 알려졌다. 그러나 이곳의 목주(木柱)는 목책(木柵)으로 사용된 목주(木柱)인지는 더욱 연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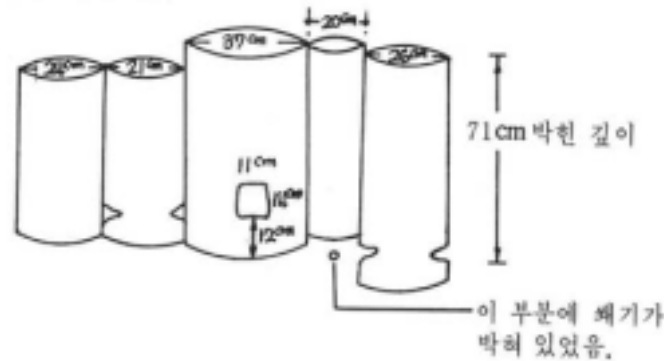


清海鎮城 海邊 圓木列배치  
 ○○○ : 화강암 압반층  
 ××× : 푸석돌층  
 ●●● : 원목열  
 (※ 장보고신연구 p.237에서 전제)

청해진성(清海鎮城) 해변(海邊) 원목열(圓木列) 배치

12) 清海鎮城의 통나무열이 교량의 하부구조로 추정되는 것도 있어 단지 防柵의 기능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소하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圓木列」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將島B지역 木柵



淸海鎮 남해변 木柵

淸海鎮(淸海鎮) 남해변(南海邊) 목책(木柵)

#### IV. 목책(木柵)의 성격검토(性格檢討)

방어시설물(防禦施設物)로서의 목책(木柵)을 설치하는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유구발굴조사성과(遺構發掘調査成果) 및 목책(木柵)기록이 토석성(土石城)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으로 목책(木柵)의 체계적(體系的)인 검토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조사성과(調査成果)와 각종기록을 통하여 방책(防柵)으로서 목책(木柵)의 성격(性格)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위치(位置)에 따른 검토(檢討)

목책(木柵)의 설치위치에 따라 산지(山地), 평지(平地), 해안(海岸)지역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데, 목책(木柵)은 토성(土城)과 함께 하는 경우와 목책(木柵)만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산지(山地)에 설치하는 목책(木柵)은 성곽설치(城郭設置)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지세(地勢)의 이점과 목책(木柵)의 방어력(防禦力)을 합친 가장 효과적인 방책(防柵)시설이 된다. 이러한 방법(方法)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한 예(例)로 임진왜란시(壬辰倭亂時) 임란삼대첩(壬亂三大捷)의 하나인 행주대첩(幸州大捷)의 경우 권울장군(權慄將軍)이 행주산성(幸州山城)에서 방책(防柵)을 설치하고 왜군(倭軍) 7개 부대를 크게 물리쳐 대승한 바 있다. 현재 행주산성(幸州山城)에는 산허리에 토성(土城)의 일부가 남아있고 목책(木柵)의 자리가 있다고 하나 목책(木柵)의 형태는 알 수 없다.

평지(平地)에 방책(防柵)을 설치하는 경우는 유구(遺構)가 발견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책(防柵)은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영루(營壘)난 행군(行軍)시에 머무는 곳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도 청해진성(淸海鎮城)과 같이 섬을 방어요새(防禦要塞)로 삼는 경우는 해안(海岸)에 설치함이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경우 적의 병선(兵船)등이 접근해 오면 대비해 가장 효과적인 방책(防柵)으로서 역할(役割)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 ●설치방법(設置方法)의 검토(檢討)

목책(木柵)은 방책(防柵)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방어력(防禦力)을 제공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시설(施設)을 한 것으로 보인다.

목책(木柵)을 설치할 때는 한 줄로 설치하는 일렬목책(一列木柵)과 두줄 또는 그 이상의 목책(木柵)을 설치한 이열목책(二列木柵)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일렬목책(一列木柵)은 일반적(一般的)인 목책(木柵)시설로 우리나라 성곽시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단곽(單郭)인데 목재(木材)를 사용한 방책(防柵)에도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적 여건과 재료의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목적이라기 보다 임시방편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그 예(例)로 조선조(朝鮮朝) 임란시(壬亂時) 당시 기록(記錄)에 의하면 진양군(晉陽郡) 진성면(晉城面) 월아산(月牙山)의 목책성(木柵城)을 예시할 수 있다. 당시 관군(官軍)이 진주성(晉州城)을 등지고 월아산(月牙山)기슭에 진지를 옮겼는데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축성(築城)은 엄두도 못내고 목책(木柵)을 세워 성새(城塞)로 삼아 월아산 목책성(月牙山木柵城)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비단 월아산(月牙山)뿐 아니고 다른 여러 곳에서 그와 같은 상황하에서 적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렬목책(一列木柵)은 발굴조사 결과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일반적인 목책(木柵) 설치형태라 할 수 있다. 이열목책(二列木柵) 또는 그 이상의 목책(木柵)은 특수한 경우로 생각되는데 이열목책(二列木柵)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양산순지리토성(梁山尊池里土城)의 경우가 유일하게 보인다. 이중책(二重柵)이나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를 남기고 있으나 발굴결과에서 보이 듯이 특이한 예(例)라 생각된다. 그 외 삼중책(三重柵) 이상의 경우는 조사연구(調査研究)가 진척됨에 따라 밝혀질 것인지 기대된다.

목책(木柵)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설치했을 것으로 보인다.

- ① 목책(木柵)만 방책(防柵)으로 설치하는 경우
- ② 목책(木柵)은 토성(土城)의 방어력(防禦力) 보강(補強)의 수단(手段)으로 토성(土城)위에 설치하는 경우
- ③ 목책(木柵)을 토성(土城)이나 석성(石城)등의 반영구적인 시설을 하기 전에 임시 방책(防柵)으로 설치하는 경우
- ④ 목책(木柵)을 방책(防柵)의 역할(役割) 비중보다는 토성(土城)의 축조 보조수단(補助手段)으로 설치하는 경우
- ⑤ 기타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목책(木柵)이 어느 경우에 해당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몽촌토성의 경우는 ①②③④등의 경우와 연관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며 순지리토성(尊池里土城)의 경우 ①②③④⑤에 다 관련지어 고려되어야 한다. 그 외의 목책발굴성과(木柵發掘成果) 역시 마찬가지로 보인다.

토성벽(土城壁)과 목책(木柵)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몽촌토성(夢村土城)의 경우를 살펴보면 목책(木柵)유구가 발견된 지점은 성외벽(城外壁) 하단부(下端部) 가까이에 설치되었고 목책(木柵)의 주주(主株)를 어느 정도 일정간격을 유지하면서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설책(設柵) 당시 계획적(計劃的)인 사전 축성계획(築城計劃)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북벽(西北壁)의 경우 주주 및 보조주(補助株)의 위치가 일렬목책(一列木柵)이기는 하나 나란하지 않고 목주(木柱)의 위치(位置)가 다소의 폭(幅)을 갖고 있음은 목책의 가구(架構)형태를 가늠하게 하는데 폭(幅)의 간격은 횡부재(橫部材)를 걸쳤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자어(漢字語) 「책(柵)」이란 나무를 이용하여 기둥을 세우고 횡부재를 한 줄 또는 두 줄 정도 걸침을 나타내는 상형문자(象形文字)로 보이며 구조적으로도 횡목(橫木)이 있어야 목책(木柵)의 견고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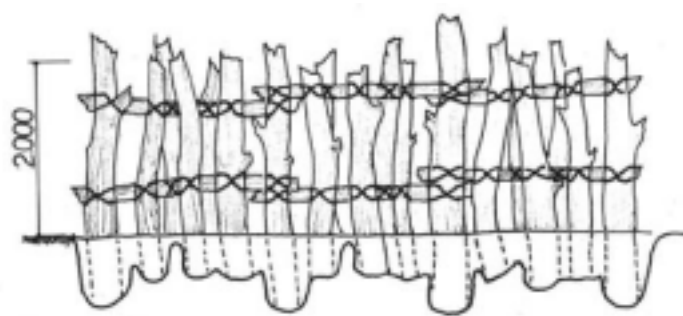
발굴성과(發掘成果)에 의한 목책비교(木柵比較)

단위:cm

성곽명(城郭名)	목주(木柱)						발견위치	비고
	간격	구멍크기	깊이	기둥굵기	높이	재료		
몽촌토성(夢村土城)	180	40-60	60-90	-	-	-	서북벽(西北壁)	
	60	30내외	25-40	-	-	-	동벽(東壁)	
양산순지이토성(梁山葺池里土城)	100내외	40-80	60-90	20-30	250-300	-	북벽	
목천토성(木川土城)	380	38내외	25내외	15내외	100내외	-	북벽	
청해진성(淸海鎭城)	연결	-	71	20-37	-	소나무 참나무	남벽	

주) : 상기제원은 필자가 도면을 참조 발췌한 숫자임

목책(木柵)의 구조를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성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목책(木柵)은 주주(主株)와 보조주(補助株)형태를 갖춘 형식과 주(主), 보조주(補助株) 구분없이 목주(木柱)위주로 방책을 만든 경우가 있는 듯 하다. 목책(木柵)의 설치에 있어서 목주(木柱)의 매설깊이는 목책(木柵)의 설치높이와 굵기에 따라 뺏을 것으로 보이며 목책(木柵)의 높이는 당시 전투형식에 맞게 2-3m 높이는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목책(木柵)은 주로 설책(設柵) 주변에서 획득 가능한 재질(材質)을 이용하였는데 당시 풍부했던 소나무와 참나무 등이 많이 사용되었으리라 짐작된다. 토성벽(土城壁)에서 노출된 목책(木柵)의 경우 토성(土城)의 단부(端部) 가까운 곳에서 설책(設柵)흔적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를 토대로 몽촌토성(夢村土城)의 목책(木柵)추정도를 제시하면 그림과 같다.[그림] 입면도[그림] 평면도



입면도  
입면도



평면도  
평면도



몽촌토성(夢村土城) 목책유구(木柵遺構)로 추정 한 복원도(復元圖)

●문헌상(文獻上)의 검토(檢討)

목책(木柵)은 문헌상(文獻上) 여러 용어로 사용되고 용어별(用語別) 각기 특성을 내포(內包)하고 있다. 대표적(代表的)인 목책(木柵)은 다음과 같다.

- 일(一). 목책성(木柵城)
- 일(一). 목책도니성(木柵途泥城)
- 일(一). 녹각성(鹿角城)
- 일(一). 목익(木杙)
- 일(一). 양마장(羊馬牆)

●목책성(木柵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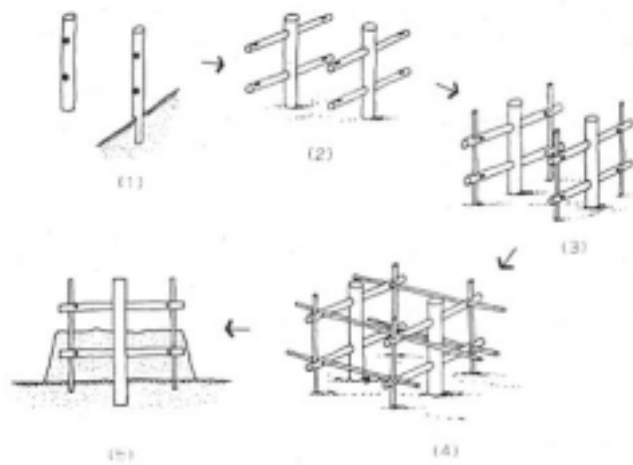
가장 일반적(一般的)으로 세워지는 목책(木柵)형태로 선사시대(先史時代)부터 널리 사용되었다. 역사시대(歷史時代)에 들어와서는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져 목주(木柱)를 2중으로 둘러기도 하고, 목주(木柱)를 중심으로 횡장목(橫長木)을 종횡(縱橫)으로 고정시켰던 유구(遺構)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日本)의 경우 내량시(奈良市) 평성궁적(平城宮跡)에서 발견되는 직경 30cm 정도의 굴립주(掘立株)의 뿌리 부분을 보면 사방(四方)으로 방형(方形)의 쉼기박음구멍이 뚫려 있어서 8C경에는 일반건물(一般建物)에서도 목주(木柱)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일본(日本) 동북지방(東北地方), 특히 다하성(多賀城)의 외곽(外廓)과 그 동북(東北)지역의 책적(柵跡)에서 많이 조사되어 일본에서는 훨씬 연대(年代)가 앞선 시기(BC 1C-AD 3C)에 기록상으로 보이는 책(柵)의 모습을 연상케 해준다.

중세이후의 목책(木柵)은 국경(國境)지방의 진(鎭), 보(保) 등에 토(土), 석재(石材)의

축성에 앞선 목책(木柵)이 먼저 축조되고 있으며 만드는 기술과 모양에 따라 달리 부르기도 하였다. 15C에 이르러서는 한국의 종래 목책(木柵)이 단지 「이고지목요위책(以枯枝木繞爲柵)」이라 하여 방어능력이 모자람을 알고 중국(中國)과 왜(倭)의 방법상의 장점(長點)을 일부 수용하여 새로운 책(柵)의 공법(公法)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임진왜란(壬辰倭亂)을 계기로 나타난 현상으로 『萬機要覽 軍政編四：關防總論』에서 유성룡(柳成龍)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植木爲株 入土一二尺 務令堅固  
 株上或二處城三處鑿穴 令受短杠 自內出外半在於內 半在於外 長可數三尺  
 短杠兩頭 又鑿穴 令受橫木次第相蓮 使之方正 從內外結柵一如入家作壁之狀  
 則內外相成 卽成複壁 而中間空虛 可以受土  
 因取外面作塹處粘土 雜以稿粘 和以水忤 令半濕 實其中而堅築之 候乾更築至於頭盡 處而上  
 高則二丈許或一(丈半)  
 數日之後 土與木相粘 堅結如石 因自內外面以細粘泥土塗之如常時塗壁之狀」

즉, 맨 먼저 기둥을 땅속으로 30-60cm 깊이로 파묻어 세우되 튼튼히 세우도록 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기둥 위에 2-3곳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짧은 빗장모양으로 안쪽에서 바깥으로 꽤 길게 꽂아 안팎으로 반쯤 내밀어 만든다. 그 다음 짧은 막대의 양끝에 다시 구멍을 뚫어서 횡목(橫木)을 차례로 끼워 연결하되 똑바로 네모꼴을 이루도록 하고 안팎으로 외를 엮어 마치 집 지을 때 벽치는 것처럼 하여 안팎이 이루어져 겹벽이 되고 중간은 비어서 흙을 받게 한다. 이렇게 하고 책(柵)의 외측에 참호를 파면서 점토 흙을 여물 썰은 것과 섞어서 물을 넣되 반쯤 물기가 있게 하여 비어있는 벽 속에 채워 넣고 마르면 또 채우고 하여 꼭대기까지 쌓아 높이가 2장(丈) 혹은 1장반(丈半)쯤 되게 한다. 그 후 며칠이 지나면 흙과 나무가 서로 붙어 들처럼 단단히 되니 이때에 안팎을 아주 고운 점토로 마치 민가의 벽을 도배하듯이 곱게 바르라는 것이다. 이처럼 목책(木柵)은 성벽내의 중심이 목주(木柱)로 되고 그 내외에 채울 수 있는 네모꼴 주머니를 만들어 여물을 섞은 흙으로 채워 굳힌 것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을 그림으로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木柵城 築造 과정  
 목책성(木柵城) 축조과정

●목책도니성(木柵塗泥城)

조선 전기(前期) 남해안의 일부지역(一部地域)에 축성되었던 성책(城柵)으로 왜구(倭寇)에 대항하기 위한 해안(海岸)과 목장(牧場)에 시설된 기록이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0》 여양현(興陽縣)의 고적(古跡) 도양폐현조(道陽廢縣條)에는 「左縣西三十里 本長興府道良道部曲 後改今名 世宗朝來屬爲牧場 立木柵泥塗其上 周八十三步」라는 기록이 있고, 『世宗實錄地理志』에는 전라도 함평현(咸平縣)의 해제목책도니성(海際木柵塗泥城)은 둘레 143보(步) 2척(尺)고 장흥도호부(長興道護府)의 두원목책도니성(荳原木柵塗泥城) 둘레 80보(步) 순천도호부(順天都護府), 여수목책도니성(麗水木柵塗泥城) 둘레 143보(步), 보성군(寶城郡) 고속현(古屬縣) 남양(南陽)의 양강역목책도니성(陽江驛木柵塗泥城) 둘레 83보(步) 등이 보인다. 목책도니성(木柵塗泥城)의 구체적인 축조방법은 아직껏 이들 성지(城址)에 대한 정확한 발굴조사가 실시되지 못하여 알 수 없다. 다만 자의(字意)로 보아서는 목책(木柵)을 세우고 흙을 발랐다는 것이므로 목책(木柵)의 소실(燒失)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과 토축(土築) 혹은 석축(石築)의 공정(工程)보다 적게 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록상의 목책도니성(木柵塗泥城)들의 규모가 150보(步)미만의 소규모이어서 고려말(考慮末)부터 조선초기(朝鮮初期)의 왜구(倭寇)에 대비한 임시 축서 방법으로 전라도(全羅道)의 해안지대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듯 하다. 목책(木柵)을 순수하게 목재(木材)로만 축조한 것이 아니고 흙을 병용(並用)하여 목책(木柵)의 약점(弱點)을 보강한 것으로 보아 15C말의 목책(木柵)설치방법을 논(論)한 설책법(設柵法)과의 유사성이 고려될 수 있다.



목각성의 목각 설치방법

●녹각성(鹿角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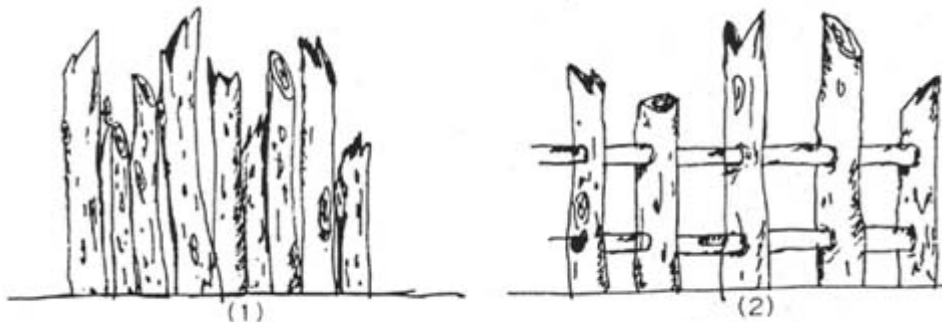
녹각목(鹿角木) 혹은 녹각(鹿角)처럼 된 목재를 이용하여 만든 성책시설(城柵施設), 임시적인 행군 때의 야영장소나 행궁(行宮)의 방비, 방어를 위한 진지(陣地)에 사용되거나 목마장(牧馬場)의 마책(馬柵)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마치 오늘날의 도로차단용(道路遮斷用)의 시설과 같이 일정하게 녹각을 만들었다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南史卷 58, 列傳 48』의 위예전(韋叡傳)에 의하면 송(宋)이 위(魏)와 싸울 때 소양(昭陽)의 군영(軍營)에서 밤에 장참(長塹)을 파고 녹각(鹿角)을 세우고 삼각주(三角株)를 잘라 성을

만들었다고 한 것이 보인다. 중국(中國)에 있어서는 장목(長木)에 X자(字)형의 빗장뼈기를 박아 놓은 것을 녹각(鹿角)이라 부르고 있고, 이를 연결해서 세우면 녹각성(鹿角城)이라 한다. 또 사슴의 성품도 경계심이 많아서 여러 마리의 사슴이 등글게 서서 뿔의 방향을 외부로 돌리고 있으며 인(人)·물(物)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군중(軍中)에서 책(柵)]을 만들 때 나무를 바깥쪽으로 향하게 돌리게 되었고 이를 녹각(鹿角)이라 한다. 우리 나라의 겨우 조선시대 초기에 녹각성의 기록이 보이고 있다. 경상도(慶尙道) 유포(柳浦)(현(現) 울산(蔚山))에 석포(石浦)를 쌓기 전에 임시로 녹각성을 쌓게 하여 100여명이 지키게 한 기록<sup>13)</sup>이 있고 세조(世祖)가 온양(溫陽)의 온천부근에 행궁(行宮)을 두고 여기에 녹각성(鹿角城)을 쌓게 하였고<sup>14)</sup> 해안(海岸)의 목장(牧場)에 녹각성을 마련하고 삼년(三年)마다 고치게 한 조처<sup>15)</sup>등이 있다.

「大清會典圖」에 보이는 녹각(鹿角)은 윗그림과 같으나 실제로는 나무에서 한쪽편의 가지만 자르고 다른 쪽의 가지는 그대로 빗잘라서 뿔쪽하게 하여 바깥을 향해 세운 녹각성이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목익(木柵)

익(柵)은 땅에 박는 말뚝으로 『左傳』에 「以柵扶其傷而死」 즉, 말뚝에 살이 긁혀서 그 상처로 죽는다. 즉, 방어수단으로서 말뚝을 일컫는다. 땅에 말뚝을 박아서 그 윗부분을 뿔쪽하게 깎아 놓은 것으로 오늘날 담장 위에 설치한 첨두철책(尖頭鐵柵)과 같은 것이다. 유성룡(柳成龍)은 임진왜란(壬辰倭亂)때 왜군이 평양성(平壤城)의 서북쪽에 안팎으로 목책(木柵)과 아울러서 익목(柵木)을 설치했다 한다.<sup>16)</sup>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목익(木柵)을 설치했다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나 방어를 위한 성책시설(城柵施設)의 일종으로 많은 목익(木柵)을 설치했었을 가능성이 있다. 유성룡(柳成龍)은 호내(濠內)에 목각(木角)을 세운다는 것도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목익 설치방법

목익 설치방법

13) 端宗實錄卷14, 端宗 3年 閏六月己酉

14) 世祖實錄卷32, 世祖10年 3月辛酉

15) 世祖實錄卷2, 世祖4年 3月辛亥

16) 《西厓集》 書狀



●양마장(羊馬牆)(우마장(牛馬牆))

성벽(城壁)과 해자(壕字)사이에 시설하는 낮은 울타리를 말한다. 중국에서는 명(明)나라시대에 왜구(倭寇)를 물리치면서 축성과 성곽의 방어술에 큰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였는데 그에 따라 이러한 병법(兵法)의 종합적인 이론(理論)서적이 편찬되었다. 척계광(戚繼光)의 《紀效新書》 모원의(茅元儀)의 무비지(武備志), 곽자장(郭子障)의 성서(城書)등이 부표적(付表的)인 것이다. 이의 영향을 받아 유성룡의 《西厓集》 이후 양마장(羊馬牆) 혹은 우마장(牛馬牆)이란 시설이 소개되고 특히 남원성(南原城)에서는 명군(明軍)에 의해 축설(築設)되기도 하였다.

양마장(우마장)의 만드는 방법은 조우석(趙禹錫)의 무비요람(武備要覽)에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설명을 약(略)한다.

## V. 결 론(結 論)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방책(防柵)으로서 목책(木柵)은 일정(一定)한 정형(定型)이 있다기보다는 방책(防柵)으로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구조(構造)를 갖고 발전(發展)해 왔다. 목책(木柵)은 단순히 목책(木柵)만의 방어력(防禦力)을 믿고 설치한 것보다는 지세(地勢)의 이점(利點)을 이용한 방법(方法)이 이용된 듯하다. 현재까지 밝혀진 목책(木柵)을 중심(中心)으로 우리 나라 목책(木柵)의 공통점(共通點)을 요약(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목책(木柵)은 원시시대(原始時代)부터 자위(自衛)의 수단(手段)으로 만들어졌으며 기록상(紀錄上)으로 보아 초기철기시대(初期鐵器時代)에 해당하는 기원전 후(紀元前後)로 생각된다.

●목책(木柵)은 토(土)·석성(石城)에 비해 임시적인 방책(防柵)으로 목책(木柵)은 토(土)·석성(石城)에 비해 장기간(長期間) 사용되었으나 후대(後代)에 올수록 사용빈도가 적었다.

●목책(木柵)의 주재료(主材料)가 목재(木材)이므로 유구(遺構)의 보존(保存)이 어려워 시설한 것보다 상대적(相對的)으로 유구발견(遺構發見)이 어려운 실정이다.

●목책(木柵)은 시설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변에서 생산되는 수종(樹種)으로 하였고 별도 외지(外地)에서 반입한 것은 아닌 듯 하다. 목재(木材)의 수종(樹種)은 내구성이 크고 주변에서 획득하기 쉬운 소나무 참나무 등이 많았다.

●목책(木柵)은 목주(木柱)를 중심으로 대부분 상부(上部)의 목주(木柱)가 지탱할 수 있는 정도의 깊이로 파서 묻고 중간(中間)에 보조주(補助株) 및 사이에 나뭇가지를 세워 외부(外部)침입을 방지한 듯하다.

●목주(木柱)의 굵기는 20-30cm 정도가 일반적(一般的)이고 목책(木柵)의 높이는 말을 타고 쉽게 넘지 못할 정도의 높이 즉 2.5m 내외가 아닌가 추정된다.

●목책(木柵)은 구조적인 보강(補強)을 위해 가로걸침나무(횡목(橫木))의 사용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목주(木柱)사이의 기둥은 비스듬한 보조(補助)기둥을 세워 틈을 막고 지지력(支持力)을 증가시킨 듯 하다.

●목책(木柵)은 순수한 목재(木材)외에 화재(火災)에 취약함을 보완하기 위해 진흙(니토(泥土)) 등을 병용(並用)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토성(土城)과 함께 설치된 목책(木柵)은 토성하단부(土城下端部)에 주로 설치되었다.

●목책(木柵)은 한 줄로 된 목책(木柵)이 주종(主種)이며 2중으로 된 특수한 경우가

보인다. 목책(木柵)은 일렬로 하되 지지력(支持力) 보강을 위해 버팀목을 부설(附設)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공통점(共通點)은 아직 우리나라 실정에서 목책(木柵)의 정형(定型)을 알아보기에는 발굴실적(發掘實績)이 너무 빈약하고 조사연구(調查研究)가 부족하다. 따라서 목책(木柵)은 얼마든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소지를 안고 있어 너무 조급히 목책(木柵)의 유형을 찾으려 하지 않았으나 두려움이 앞선다. 여하튼 계속적인 조사연구가 어느 정도 진척될 때 목책(木柵)의 정형(定型)에 접근해 갈 것으로 보인다.